

男축구, 중국에 짜릿한 역전승... 우승 보인다

아시안게임 U-23 대표팀
중국 상대로 2-1 승리

초반 선제골 내줬으나
이영준·배준호 연속골

3일 오후 7시30분 결승전
4회 연속 금메달 도전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에 한 경기만을 남겨뒀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0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최대 우승국(6회)이자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금메달을 따냈던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3일 오후 7시30분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날 대표팀은 최전방에 이영준(그라스호퍼)을 내세우고 엄지성(스완지시티), 배준호(스토크시티), 이현주(아로카)를 2선에 배치했다. 중원에선 이승원(강원)과 황도윤(서울)이 호흡을 맞췄고, 포백 수비진은 최석현(울산), 김지수(브렌트퍼드), 신민하(강원), 배현서



30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전반전 한국 이영준(왼쪽)이 동점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로 꾸려졌다. 골문은 김준홍(수원)이 지켰다. 초반부터 세트피스 기회를 여러 차례 얻었으나 수비 시 '5백'으로 촘촘한 벽을 세운 중국에 막히고 거친 플레이에도 시달리던 한국은 전반 22분 예상지 못한 일격을 당했다. 중원이 완전히 열리면서 중국 미

드필더 우시가 센터서클에서 공간을 노린 로빙 패스를 보냈고, 양위둥이 절묘하게 가슴으로 받아낸 뒤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왼발 슈트를 꽂았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33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엄지성이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

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 후반을 시작하며 한국은 이현주 대신 강상윤(전북)을 투입,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고 배준호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 역전을 노렸다. 하지만 후반 중국의 밀집 수비를 쉽게 뚫지 못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간결한 공격에 도리어 흔들리며 간격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측면 돌파로 활로를 뚫어보려 했으나 크로스가 부정확하거나 수비에 끊기면서 이렇다 할 균열을 내지 못했다. 후반 34분엔 무탈리푸 이밍카리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김지수가 머리로 걷어내려다 자책골이 될 뻔한 상황도 있었다. 간발의 차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위기를 넘긴 대표팀은 후반 37분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골을 만들어냈다. 엄지성이 왼쪽 측면을 휘저은 뒤 절묘한 크로스를 올렸고, 배준호가 헤더로 골 그물을 흔들며 천금 같은 역전 결승포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이민성호는 후반 44분 이영준을 수비수 박경섭(인천)으로 바꿔 지키기에 나섰고, 추가 시간엔 배준호를 김명준(해군)으로 바꿔주며 어렵게 잡은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연합뉴스

12년 만의 복싱 남자 金 정조준

60kg급 장동환, 80kg급 김민성 AG 결승 출격

한국 남자 복싱이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한국 남자 복싱 차세대 주자 장동환과 김민성(이상 한국체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시 니시오 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복싱 결승전에 나란히 출격한다. 준결승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을 거두며 은메달을 확보한 두 선수는 이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 한국 남자 복싱은 2014 인천 대회 신종훈(남자 49kg급)과 함상명(56kg급)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금맥이 끊겼다. 마지막 관문에서 마주할 상대들은 체급별 세계 최정상급 복서들이다. 연합뉴스

남자 60kg급 결승에 나서는 장동환의 상대는 이 체급 세계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강자 압두말릭 할로코프(우즈베키스탄)다. 남자 80kg급 결승에 오르는 김민성(세계 10위)은 랭킹 12위의 안쿠시(인도)와 맞붙는다. 랭킹 차이가 크지 않고 두 선수 모두 인파이터 스타일이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둔 대표팀의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김 감독은 “선수들 모두 ‘12년 만에 금메달을 뒤흔쳐 치제했던 한국 복싱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품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복싱 남자 80kg급 준결승 한국 김민성(왼쪽)이 요르단 후세인 이아사이시를 상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냉온탕 오간 모레노호, 베네수엘라와 격돌

내일 오후 8시... ‘승부처’ 중원 조합 등 관심

모레노호 출범 후 두 경기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간 한국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앞서 한국은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를 3-0으로 누르고 기분 좋게 첫걸음을 뒀으나

나흘 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에 1-4로 완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모레노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에 맞춰 해외파와 K리거를 두루 가용하며 선수들의 기량과 자신이 요구하는 전술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지켜봤다. 지난 두 경기에서 모레노호는 상대의 중원 압박 수준에 따라 경기력에 기복을 드러내면서 결국 상반



지난달 28일 한국 모레노 감독이 우루과이전 종료 직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된 성적표를 받았다. 에콰도르전에서는 중원 싸움이 치열했던 전반에는 0-0으로 맞섰고, 상대 압박이 느슨해진 후반 세 골을 몰아쳐 승리를 낚았다.

그러나 우루과이전에서는 상대방의 강한 압박 속에서 패스와 볼 소유,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반에만 세 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베네수엘라전에서는 투톱에도 변화줄 줄 가능성이 있다. 모레노 감독이 공격수로 분류한 자원에는 이동경(울산), 오세훈(시미즈)이 들어 있다.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FIFA 랭킹은 30일 현재 48위로, 한국(32위)보다 아래다. 연합뉴스

맨시티 1조6000억 장부 조작... 리그 퇴출 가능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허위’ 계약으로 재정 상태를 조작하며 거의 10년 동안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PL은 이 사안을 조사한 독립위원회가 맨시티의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9시즌에 걸친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전부와 조사 비협조 관련 혐의 4건 중 3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독립위원회는 맨시티가 여러 상업 파트너와 실제 합의 내용을 왜곡한 ‘허위’ 계약을 맺어 매출을 부풀리고 비용을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리거나 줄인 금액은 9억파운드(약 1조6000억원)가 넘는다.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EPL 규정상 승점 삭감과 벌금은 물론 리그 퇴출까지 가능하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혐의에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15 열린채널 11:55 국가유신선례 드요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여가는 나고야 [양궁] 8강-결승 [골프] 남녀 2라운드 17:00 여가는 나고야 [유도] 동메달 결정-결승전 [하키] 남자 준결승 [레슬링] 예선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가족관계증명서(예) 8:3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유도 10:4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유도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30 나고야 2026 양궁 컴파운드 / 유도 / 레슬링 / 골프 / 배구 남 8강	8:50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호 9:20 처음 배우는 시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지식채널e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4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7:10 피파 피크 18:50 귀하심 몸 19:45 시대특격
12:00 KBS 뉴스 12 13:0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체조 / 골프 / 주짓수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3:00 여가는 나고야 [양궁] 8강-결승 [사격] 결승 [골프] 남녀 2라운드 17:00 여가는 나고야 [유도] 동메달 결정-결승전 [하키] 남자 준결승 [레슬링] 결승	12:5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8강-결승 15:3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사격/골프 17:3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사격/골프	12:00 나고야 2026 양궁 컴파운드 / 유도 / 레슬링 / 골프 / 배구 남 8강 15:30 나고야 2026 사격 16:30 나고야 2026 유도 / 사격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넷 제주를 말한다 10:00 제주의 가치 재발견 시즌 7 12:30 수중출력 13:20 제2회 탐는 어린이 동요제 14:00 제2회 탐는 어린이 동요제 15:20 KCTV 스페셜 16:00 켈리진 퀴즈쇼 17:20 네트워크 전국발굴 19:30 바다술 탐험대 20:00 리얼캐논스토리 나는 능부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연속극 열매가 미쳤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드 22:50 KBS 뉴스 23:0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20:30 신상출시 펠스토크링 22:00 토요일 마시리즈 너 알고 다른 연예(재)	19:35 생방송 연극특편 720+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특집 다큐멘터리 현기영, 기억의 섬에서 22:00 구해줘! 홈즈 23:50 함께 아시아	19:50 나고야 2026 특집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틀만 나면(재) 22: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30 나고야 2026 하이라이트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꾸미의 여행기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스포츠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언행 자제. 48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소식이 온다. 형제간 친목이 있다. 60년 문서·매매계약은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루거나 훗날을 기약하라. 72년 직장내 이통, 변화가 있으며 사업장의 관공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 84년 서두르면 일이 안 풀리니 신중하라.

37년 자녀로 인한 기쁨 또는 경사가 있다. 손님이 방문. 49년 출타할 일이 생긴다. 자금 지출할 문제가 생기니 행동 조심. 61년 활동이 커지고 분주하다. 그리운 친구의 소식을 듣는다. 73년 마음이 밝아져 기분이 호전되고 몸값이나 친목을 도모하려고 한다. 85년 봉사 또는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라. 기쁨이 있다.

38년 의욕이 넘치고 몸이 분주. 협력이 높아지거나 당노 조성. 50년 집안의 어른께 예·경사가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다. 62년 재물 분실수가 있으니 외출 시 문단속 철저, 가정은 부부갈등. 74년 직원이나 부하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 86년 업무의 실수 조심.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은 금물.

39년 화합과 협조가 일의 능률을 높이고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51년 뒷야회 문제로 다소 걱정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재물지출이 따른다. 63년 간섭하지 말 것. 참견 시 오히려 힘이 된다. 언행에 유의하라. 75년 활동력 왕성. 전문가에게 유리. 매출 증대. 87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40년 함께 여가를 즐기고 여행이나 외출을 즐겨라. 52년 자녀로 인한 소식을 접한다. 자녀혼인 또는 자녀에게 취업 소식이 있다. 64년 재물 또는 문서가 있는 날. 관공서와 관계있는 일 기쁨이 있다. 76년 이통, 변화가 생기는 날. 업무량이 늘어난다. 88년 침체된 의욕에서 점차 회복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41년 귀인 도움으로 할 일이 생기고 재물이 이득이 발생. 희망을 가져라. 53년 집착할 일이 생기거나 생각지 않던 일이 오면 마무리를 잘 할 것. 65년 가족과 함께 지낼 일이 생긴다. 77년 준비하는 마음과 새로운 속에 갈등 고민. 89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받는다. 대인관계에서 인정받는다.

42년 사소한 일로 분쟁을 하니 마음을 이해하고 친화하라. 54년 음식을 함께 먹을 일이 생긴다. 친목이 이뤄진다. 66년 반가운 친지나 객식구의 방문으로 분주. 부부애정에 최선을 다하라. 78년 직장이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길하나 자만심은 금물. 90년 과음, 과식은 체중관리와 건강관리에 적신호.

43년 달 데가 많은데 지출이 많아 고민한다. 축의금 낼 곳이 많아진다. 55년 투자처가 생기니 기대이익이 적은 편. 67년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선택을 고민한다. 본인의 의지대로 추진하라. 79년 동료나 친구 이성관계에서 갈등, 불화가 생긴다. 91년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언행은 금지. 술선수범으로 인정받자.

44년 과욕은 화를 부른다. 말이 많으면 손해. 구설이 함께 온다. 56년 할 일이 생기고 직장이나 사업인은 업무과다로 피곤. 68년 정신적 안정이 필요. 차량, 오토바이 운전 조심. 80년 자만심과 독단은 나를 고독하게 할 수 있다. 92년 금할수록 돌아가는 여유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때.

45년 단체모임이나 동창회에 갈 일이 생긴다. 내 자랑을 많이 하면 돈이 그만큼 나가기 된다. 57년 친지나 객식구의 방문으로 반가우나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9년 갈 곳도 많고 모임도 겹친다. 술은 자제. 81년 시작한 일은 최선을 다하라. 결과에 인정받는다. 93년 귀인의 만남과 대화로 시원함이 있다.

46년 휴식이 필요하니 온천욕도 좋다. 58년 몸이 지쳐 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 음식 주의. 70년 목돈이 필요. 뒷보이나 부모, 형제의 도움을 청하는 게 유리하다. 82년 과로하지 마라. 삶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 94년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경사가 있다. 친절과 양보가 미덕이다.

47년 분주하고 활동적인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 59년 친구나 동업자의 협조로 할 일이 생기고 자금 회전이 된다. 조기 귀가. 71년 자신감이 있고 의욕이 좋다. 주어진 일 마무리를 잘하라. 83년 쓸데없는 욕심, 욕망은 마음만 다치고 고민으로 가득 찬다. 95년 목표를 정하고 충실히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